

## Online Series

2016. 08.08. | CO 16-21

# 대북제재 이후의 북중교역,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홍제환(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북중교역,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매월 하순 중국 해관에서 북중교역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과 연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북한 정권의 외화수입원 차단이 대북제재 목적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그 주요 루트인 대중수출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단순히 전체 대중수출액 혹은 주요 품목의 수출액 변화만을 놓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대중수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평가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제재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대중수출 감소

[표 1]은 2016년 북한의 대중수출입 규모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 분기별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교역 규모를 보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으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4분기 들어서는 3.8% 감소하였다. 2/4분기 교역 규모의 감소를 이끈 것은 대중수출 감소였다. 수입은 3.4% 증가한 반면, 대중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한 5억 4,754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4분기 수출규모로는 2010년 이후 최저치이다. 한편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중

수출 규모를 월별로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 4월에는 22.3%, 5월 12.6%, 6월 3.2% 감소하였다.

**[표 1] 북한의 분기별 대중수출입 규모**

(단위: 천 달러, %)

	2015년			2016년					
	수출	수입	총계	수출		수입		총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4분기	545,547	563,255	1,108,802	568,669	4.2	608,336	8.0	1,177,005	6.2
2/4분기	626,173	769,630	1,395,803	547,544	-12.6	795,572	3.4	1,343,116	-3.8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tat.kita.net>).

주: 수출입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이러한 현재까지의 추세만 놓고 본다면, 대북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 예상보다 대중수출의 변화폭이 크지 않으며, 효과의 크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수출규모만을 놓고 제재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선부를 뺀더러 왜곡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대중수출 감소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그 이유로는 우선 대중수출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은 대북제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재와 무관하게 수출품목의 국제시세가 변할 수도 있고, 수입국인 중국의 시장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이자 제재 대상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2016년 분기별 수출 통계를 이용해 이에 대해 살펴보자([표 2] 참고).

**[표 2] 2016년 분기별 무연탄 및 철광석의 대중수출**

(단위: 천 달러, %)

분기	무연탄					철광석			
	수출금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수출금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		수출금액	수출물량	수출단가	
1/4분기	250,274	4.2	45.2	-28.3	9,250	-50.0	-28.8	-29.7	
2/4분기	234,527	-28.4	-13.3	-17.4	26,215	82.3	82.1	0.1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tat.kita.net>).

대중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무연탄의 경우, 2/4분기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출물량의 감소(-13.3%)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수출단가의 하락(-17.4%)도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수출물량 감소에는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중국 내 무연탄 수요의 변화도 작용하였다. 2/4분기 중국의 무연탄 수입 규모는 금액과 물량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각각 34.8%, 18.7%로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보다 더 컸다.<sup>1)</sup>

철광석은 대북제재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2.3% 증가하였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수출물량 증가에 기인했다. 이러한 철광석의 수출증가 역시 상당 부분은 중국 내 수요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S 26011110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2/4분기 중국의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하였다.

이렇듯 무연탄과 철광석에 대한 분석 결과는 2/4분기 대중수출에 제재뿐만 아니라 가격, 중국 내 수요 등 다른 변수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제재 효과가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수출상품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도 고려해야

수출규모를 토대로 제재 효과를 논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출규모와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사이에 반드시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수출상품 구조가 바뀔 경우 그러한데, 이는 상품별로 외화가득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류수출을 늘리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자.<sup>2)</sup>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표 3]에 제시된 2016년 2/4분기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을 보면, 광물류, 수산물과 함께 여성코트, 남성코트를

1) 그 결과 중국의 무연탄 수입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으로는 80.2%, 물량으로는 85.1%로 전년 동기의 73.1%, 79.8%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2) 이렇게 상정한 이유는,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인 무연탄의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다른 수출주력상품의 수출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유력후보 중 하나가 의류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류품목이 이미 대거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 게다가 중국 내 시장 상황도 전망이 나쁘지 않은 만큼, 북한 당국은 의류 수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의류(HS 61, 62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표 3] 2016년 2/4분기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

(HS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금액	점유율	순위	품목명	수출금액	점유율
1	석탄	235,202	43.0	6	연체동물	20,644	3.8
2	여성 코트	33,265	6.1	7	티셔츠	18,710	3.4
3	철광석	26,390	4.8	8	연광과 그 정광	16,943	3.1
4	남성 코트	24,787	4.5	9	여성 슈트	16,670	3.0
5	남성 슈트	24,369	4.5	10	아연의 피	13,166	2.4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tat.kita.net>).

주 1: 점유율은 2016년 2/4분기 총수출금액 중 각 품목별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그렇다면 무연탄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의류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대중수출 상품구조가 바뀌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현재 북한의 의류 수출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위탁가공한 후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무연탄 수출에 비해 외화가득률이 크게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의류 수출 시 수출금액 중 상당 부분은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데에 지출되므로 북한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수출금액의 일부(2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북한이 의류 수출을 늘려 대북제재로 인한 무연탄 수출 감소를 상쇄해 대중수출 규모를 유지 혹은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외화벌이는 상당한 타격을 받는 상황, 즉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sup>3)</sup>

### 북중교역 통계에 근거한 제재 효과 평가에 보다 신중해야

이처럼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에만 의존한 대북제재 효과 분석은 자칫 실상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논하지 않았지만, 제재 이후 불과 3개월의 교역규모만 관찰가능한 상황인 만큼, 제재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선부르게 결론짓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3) 이와 반대로 수출상품 구조의 변화로 인해 대중수출규모는 유지 내지 감소함에도 북한의 외화벌이는 타격을 받지 않는, 즉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켜보면서, 당분간은 제재 이후 대중수출의 변화 양상, 해외 노동자 송출을 비롯한 북중교역 이외의 외화수입원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재 국면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